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1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금남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호회·연인·가족·동료... 추억과 함께 달렸다

케냐 출신 우승자·6연패 저지 신흥 강자 '눈길'

1일 치러진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명품 도심 코스를 만끽하려는 마라토너들로 가득했다.

30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 5·18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금남로를 가로질러 월드컵경기장 입구를 지나 영산강변을 따라 달리다 서창교, 승촌보를 돌아 상무시민공원까지 하프와 42.195km 풀코스를 질주하며 새봄 정취를 즐겼다.

출발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알록달록한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3·1절을 맞아 태극기와 풍선을 착용하고 질주하는 마라토너들도 눈에 띄었다.

하프코스나 풀코스 부문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스임에도, 마라톤 동호회원 뿐 아니라 젊은 커플·직장 동료·부부, 가족 등이 참여해 도심 차로를 따라 달리며 추억을 만들었다.

◇인연 많은 우승자·깜짝 우승자=전년도 우승자의 질주는 여전했다. 김수용(40)씨는 이날 2시간 35분 32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맨처음으로 끝내며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김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1 마라톤대회 풀코스 2연패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하프 코스에서 우승했던 김보건(28)씨는 올해 풀코스에서 2

3·1절 마라톤 부문별 순위·기록

부문	순위	이름	기록
풀코스 남자	1	김수용	2:35:32
	2	김보건	2:35:41
	3	박홍석	2:36:19
풀코스 여자	1	이선영	2:56:18
	2	이정숙	2:56:24
	3	문선미	3:07:01
하프 남자	1	davepeter	1:12:04
	2	박창하	1:13:41
	3	이재식	1:14:38
하프 여자	1	류승화	1:24:56
	2	이은혜	1:26:43
	3	백지윤	1:31:24

위에 올랐다.

여자 풀코스 부문은 지난해까지 3·1 마라톤 5연패를 이룬 이정숙(51)씨를 제친 이선영(39)씨가 차지했다.

남자 하프코스도 '깜짝' 우승자가 나왔다.

케냐 출신의 데이브 피터(28)씨는 이날 3·1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 첫 출전, 눈부신 질주로 맨 먼저 우승 타이틀을 휩쓸었다. 류승화(38)씨는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자 타이틀을 3년째 지키는 실력을 보여줬



제51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 남자 부문 우승자 김수용씨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다. 그는 올해 하프코스에서 1시간 24분 56초의 기록으로 3·1 마라톤 3연패를 달성했다.

◇'환상적 도심 코스', '매끄러운 진행'=참가자들은 3·1 마라톤 코스를 민주화 성지인 광주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따라 달리는 매력적 코스라고 입을 모았다. 매끄러운 진행에 대한 칭찬도 잇따랐다.

남자 하프코스 우승자인 케냐 출신의 데

이브 피터는 "도심을 달리는 코스가 환상적"이라며 "도시도 깨끗하고 진행도 훌륭했다"고 참가 소감을 피력했다.

3년째 3·1 마라톤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을 거머쥔 류승화씨는 "교통 경찰의 완벽한 도로통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코스에서 오는 짜릿함은 광주일보 3·1 마라톤만의 매력"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의 실력있는 선수들 참여 3·1절 마라톤대회 매년 발전”

심재용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 관전평

“꽃샘추위를 녹이는 마라톤 열기였습니다.”
“광주 육상의 대부”인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가 심판 총괄로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이끌었다.

심 전무는 “대회 전날 눈이 내려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다. 조금 쌀쌀하기는 했지만 마라톤을 뛰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마라톤 대축제를 위해 하늘도 도움을 줬다”며 “특별한 사고와 부상자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3·1 마라톤은 호남의 마라톤을 넘어 한국 마라톤의 역사이기도 하다.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용, LA 김원식 등이 대회 출신이다”며 “오랜 역사는 물론 대회 코스도 호남 마라톤을 대표한다. 대선배들



이 전남도청을 출발해 광주 도심을 달렸다. 부활한 도심 코스는 어느 대회 코스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심 전무는 또 “홍룡한 코스를 달리기 위해 전국의 실력있는 마라토너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매년 대회가 발전하고 있다. 도심을 달리는 마라토너들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도 마라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며 “새봄을 여는 질주를 위해 광주를 찾은 마라톤 동호인들과 대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준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